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미술 축제” 공모 기획안

1. 전 시 명: 양평 프로젝트/프로젝트
2. 전시기간: 7월 중순-8월 중순, 한달간
3. 전시장소: 문화관광부 청사 부근 열린마당
4. 총소요 예상액: 20,000,000 (원)
5. 지원 신청액: 7,000,000 (원)
6. 대표자명: 김용익(金容翼)
7. 주소: (139-2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1110-1508
Tel: 934-5313, 019-378-8177

8. 전시개요

벽돌 약 4만장 내외를 문화관광부 내의 로비, 기타장소에 보도블럭처럼 깔고 벽돌 사이의 틈을 모래로 메우고 거기에 풀씨를 뿌려 삭이 터 올라오게 한다. 각 벽돌에는 이 벽돌을 기증한 사람 혹은 단체 이름, 그리고 몇 가지 글들 (예컨대 맑은물 사랑, 자연사 박물관을 양평으로, 반디불을 보러 양평으로 오세요 등)이 새겨진다. 이 이름과 글을 새기는 작업은 양평군의 주민,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벽돌들은 양평군으로부터 빌려오게 될 것이다.

9. 전시 목적 및 기획의도

이 작업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불발에 그치고 말게 된 양평 8만 군민 벽돌 한장 모으기 운동을 원래의 의도인 기념 조형물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보고자 하는 데 있다. 설치장소로 문화관광부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자연사 박물관 유치가 되었던 문화 예술 관광 도시가 되었던 일차적으로 관련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전시 기간 동안 양평군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전단을 나눠주는 등, 군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몇가지 이벤트**들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인** 의도가 있다면 공간을 구획하고 사람을 그 장소에 한정시킴으로써 권력을 작동시키는 국가권력의 한 대행기관인 문화관광부 청사안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바깥의 보도(틈새에 솟아난 풀들은 이것을 상기시키는 소도구이다.)를 실현시켜 놓음으로써, 그리고 노점상처럼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점유했다가 사라지는 유목적(nomadic)인 설치를 함으로써 좌표화된 장소와 그것의 배타적 점유라는 권력에 대한 비판까지도 읽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과 예술, 비전문성과 전문성, 관람자와 작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공공 미술**(이를테면 new genre public art)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도중 하차하게 된 벽돌 모으기 운동이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10. 구성

- 1)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기념비성을 배제한다.
- 2) 영원불변할 듯이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다가 철수한다.
- 3) 설치와 철수에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철수 후 벽돌들은 모두 재활용된다.
- 4) 모든 발생 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한다.

11. 시행방안 또는 운영계획

경기도 양평 주민들은 수도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때문에 생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1999년 초엔 그들의 불만을 집단적으로 나타낸 적도 있다. 양평군 당국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돌리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양평, 관광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양평, 맑은물을 지키고 사랑하는 생태 도시로서의 양평의 이미지를 살리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타의 도시들이 공단등 자연 훼손적인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꾀해온 것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지역 발전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중의 하나가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양평에 유치하여 양평의 이미지를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8만 주민 벽돌 한장 모으기 운동**이었다. 이렇게 모아진 벽돌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맑은 물과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도시 건설의 염원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현재 중단되어 그 동안 모여진 벽돌들은 군민회관 앞 광장에 일년 가까이 방치된채 8만 주민의 염원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이렇게 중단되어 무산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시하는 이 **양평 프로젝트/프로젝트**를 통하여 좀 다른 버전(version)으로 살려보고자 한다.

애초부터 나는 그 기념 조형물이 모뉴멘탈리티를 배제하고 땅에 낮게 깔리며,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그 벽돌들은 재활용 되어야 하며, 모든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사용되어야만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려는 생태 도시로서의 양평의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군 당국과 의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예산 초과라는 암초에 걸려버렸던 것이다.

12. 기대효과

만일 이 프로젝트가 어느 구체적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너무 두드러져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면 나는 예술이 그 보편성의 경계를 넘어 현실로 확장될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체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실적 구체성.**

더불어 양평으로 상징되는 팔당 상수원 지역의 현실을 소재로 삼음으로써 현재 환경 문제의 현안으로 떠오른 물 문제에 대한 관심 촉발과, 상수원 관리 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정서적 편차 극복의 시도라는 공공적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했음을 밝혀두고 싶다.

그리고 설치 장소로서 문화관광부가 어렵다면 **환경부**, 혹은 기타 유관기관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13. 전시기획자 경력

김용익(金容翼)

약력

1947 서울출생

- 197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1980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96 현재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개인전

- 1977 서울갤러리 (서울)
- 1978 「手」 갤러리 (토쿄, 일본)
- 1982 관훈 갤러리 (서울)
- 1983 문화원 화랑 (대전)
- 1986 인공 갤러리 (대구)
- 1989 인공 갤러리 (서울)
- 1992 다인 갤러리 (서울)
- 1993 인공 갤러리 (서울)
- 1994 인공 갤러리 (대구)
- 1995 학천 갤러리 (청주)
- 1996 웅 갤러리 (서울)
- 1997 금호 미술관 (서울)

주요 그룹전

- 1975 상파울로 비엔날레 (상파울로 브라질)
- 1977 한국현대미술의 단면전 (센트럴미술관 토쿄, 일본)
- 1982 한·일 종이조형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교토 시립미술관 교토,일본)
- 1983 한국현대미술전-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전 (일본 5개도시 순회)
- 1986 요꼬하마, 서울현대미술전 '86 (요꼬하마 시립미술관 요꼬하마 ,일본)
- 1987 30/40 기하학이 있는 추상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 1988 한국현대회화 70년대의 흐름 (위커히미술관 서울)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1970-79 (무역센터 현대갤러리 서울)
- 1990 '90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
- 1991 선재미술관 개관기념전 (선재 미술관 경주)
- 1996 Two-One Man Show (최갤러리 서울)
Two-One Man Show (아르스폴로나 갤러리 바르샤바, 폴란드)
- 1997 한국미술 '97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
그리기와 쓰기 (한림미술관 대전)
- 1998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98 도시와영상전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그림보다 액자가 더 좋다 (금호미술관 서울)
- 1999 코리안 팝 (성곡미술관 서울)
동북아와 제3세계미술전(서울 시립미술관)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
호암미술관(서울, 한국)
토쿄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도쿄, 일본)
금호미술관(서울, 한국)
서울 시립미술관(서울, 한국)

참고서지

미즈에 (1975년 3월호, 도쿄)
아트 인터내셔널 (1975년 6월호, 쾰리히)
미술수첩 (1977년 9월호, 도쿄)
미술수첩 (1977년 10월호, 도쿄)
신미술신문 (1977년 8월 21일자, 도쿄)
공간 (1978년 11월호, 서울)
화랑 (1978년 가을호, 서울)
계간미술 (1979년 9월호, 서울)
공간 (1980년 9월호, 서울)
계간미술 (1985년 봄호, 서울)
이일 미술평론집-한국미술,그 오늘의 얼굴(1982년 공간사, 서울)
공간 (1989년 5월호, 서울 정광호에 의한 김용익개인전 리뷰 ‘눈의 교란을 통한 회화적 신화의 해체’)
이일 미술평론집-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1991년 열화당, 서울)
공간 (1997년 1월호, 서울 박찬경에 의한 김용익개인전 리뷰 ‘역설로서의 기념비성’)
기타; 나까하라 유우스께의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전’ 카타로그 서문(1977년)
조셉 라브의 ‘김용익 개인전’ 카타로그 서문(1978년)
이일의 ‘신예작가 12인展’ 추천의 글(1979년)
이일의 ‘김용익 개인전’ 카타로그 서문(1982년)
황현욱의 ‘김용익 개인전’ 카타로그 서문(1986년)
류병학의 ‘Two- One Man Show’ 카타로그 서문 (1996년)
류병학의 ‘INSTAL-SCAPE 展’ 카타로그 서문(1996년)
강성원의 ‘김용익 개인전(금호미술관)’ 카타로그 서문(1997년)
박찬경의 ‘김용익 개인전(금호미술관)’ 카타로그 서문(1997년)
류병학의 ‘김용익 개인전(금호미술관)’ 카타로그 서문(1997년)

미 출판된 글들

타는 일회성(experformance)에서 생명의 지속성(introperformance)으로’
-김용익 개인전 뒤에 서서- (배준성 1993)
70년대, 그리고 회색 (문범 1993)
‘향기도 꿀도 없는 꽃은 바람에 의해 스스로 꽃가루를 날린다’
-김용익과 나의 생존 연습기-부분 (홍명섭 1993)

논문 및 에세이 발표

- “구조주의와 현대미술” (홍익미술 제3호 1974 서울)
- “순수성에 나타난 예술과 인생의 분리” (홍대학보 1974년 5월1일자 서울)
- “해프닝 홍씨상가” (홍대학보 1975년 3월15일자 서울)
- “제3회 평면그림전 관람기” (홍대학보 1977년 6월1일자 서울)
- 70년대의 작가들-작가의 발언 (화랑 1978년 가을호 서울)
- 작가노트-“물질과 이미지의 대립관계의 화해” (공간 1978년 11월호 서울)
- “한국현대미술의 아방가르드- ‘한국현대미술 20년 동향전’ 과 더불어 본 궤적”
(공간 1979년 1월호 서울)
- “평면 오브제” (청년 미술 1979년 호 서울)
- “한국의 현대미술-서울에서의 소식”
(토쿄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 발행, 미술관 뉴스 1979년 8월호 도쿄)
-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논문 1980년 서울)
- 작가노트-“개념을 통한 개념의 극복” (공간 1980년 9월호 서울)
-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와 예술의 정신” (선미술 1982년 여름호 서울)
- 서평-“한국현대미술의 숙명적 모색과 그 풍토화” (공간 1982년 9월호 서울)
- “개념주의으로 본 현대미술” (홍익미술 제5호 1983년 서울)
- 리뷰 -“새로운 미국 종이작품전을 보는 하나의 시각” (공간 1983년 7월호 서울)
- 리뷰-“新漢城派 大展” (雄獅美術 1983년 8월호 타이페이)
- “미니멀 아트” (충대예술 창간호 1985년 대전)
- 작가노트 (계간미술 1986년 겨울호 통권40호 서울)
-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산” (선미술 1985년 겨울호 서울)
- 작가노트 (무역센터현대미술관 개관기념전-한국현대미술의 모더니즘
1970-1979 展 카탈로그 1988년 서울)
- “윤형근에 관하여”(공간1989년 11월호 서울)
- 작가노트 (공간 1993년 9월호 서울)
- 현장의 작가 : 김용민 화실 탐방기-“풍경, 곰팡, 여름…………그리고 절망 또는 종생 기”
(가나아트 1994년 9-10월호 통권 39호 서울)
- 작가노트 “Narrow based specialist의 Note 1” (웅 갤러리 개인전 카탈로그 1996년 서울)
- 작가노트 “Narrow based specialist의 Note 2”(금호미술관 개인전 카탈로그 1997년 서울)
- 작가노트 “노우트 - 3”(Forum A 창간호 1998년 서울)

14. 총예산안

○ 수입예산안

항목		금액	산출근거
자체조달	자체자금	0	
	사업수입 예상액	0	
외부조달	지원금	7,000,000	
	지자체 보조금	13,000,000	양평군 협찬
합계		20,000,000	

○ 지출예산안

항목	금액	산출 근거		비고
기획구성료	2,350,000	전시기획자 기획비	1,500,000	지원금 충당
		전시기획자 보조	450,000	지원금 충당
		시각디자인비	400,000	지원금 충당
설치 및 유지비	6,900,000	벽돌 운반비	600,000	
		벽돌 조적비	20,000개*300	6,000,000
		유지 관리비	20,000*15일*1인	300,000
재료비	6,420,000	적벽돌	20,000*300	6,000,000
		모래		400,000
		물잔디씨		20,000
도서인쇄비	2,630,000	4도인쇄(20p)	1000부	2,000,000
		봉투	1000부	130,000
		원고료		500,000
홍보비	700,000	발송비		200,000
		현수막	100,000*5개	500,000
진행비	1,000,000	개막식 비용		500,000
		자료촬영수집비		200,000
		퍼포먼스	100,000*3인	300,000
합계	20,000,000			